

Nansen Academy : 경험보고서

'노르웨이', 어릴 적 처음 들었을 땐 이름이 예쁜 북유럽의 어느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가보니 정말 말 그대로 자연, 사람들, 풍경 모든게 예쁘고 동화 같은 상상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참가후기에 제가 난센 아카데미의 강의들을 들으며 느낀 점, 다른나라 학생들과 얘기하며 느낀 점 그리고 릴레함메르를 돌아다니며 느낀 것들을 적어봅니다.

1. 난센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것들



제일 기억에 남는 강의 3 개 '성평등의 역설', '교육과 소프트파워' 그리고 '제로섬 게임을 넘어선 북동아시아의 다자협동' 에 관한 내용입니다.

1) The Gender Equality Paradox - a Nordic Mystery? (by Signe Strom)

노르딕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찾아보았던 자료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주제인 '성평등의 역설'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양성평등 1 위 국가인 노르웨이, 국민들 스스로가 기회의 평등에 있어 성적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데 왜 결과적으로 직업현장에서 성적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2) Education and Soft Power (by Freya Jie Gao)

미국 뉴스의 무례한 발언을 재치있게 비판하는 중국의 한 아나운서의 영상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무역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처럼 국방력 같은 무력이 아닌 시장경제력 또한 적지 않은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soft power'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중국이 '공자학당'이라고 중국어를 국제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에 세운 중국어문화학당들 또한 soft power 의 일부라는 내용을 인상 깊게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우리나라의 soft power 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팀의 주제를 '한국의 soft power'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3)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Beyond the Zero-Sum Game

저희 학교 교수님이라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난센 아카데미의 노르딕 프로그램과 같은 동서양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chip talk'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가 Newday program 에 참여하는 이유라고 강조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2. 북유럽 학생들과 지내며 느낀 점들

1) different but similar

노르웨이와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이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에 사이에서 갈등을 겪듯, 노르웨이도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고, 두 나라 모두 식민지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공유하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서로 놀라던 것이 기억납니다.

2) being polite

강의 시간에 몇몇 아시아 학생들이 폰을 보거나 옆사람과 속닥거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노르웨이 친구가 강의가 끝난 후에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폰을 보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는 것을 넉넉히 말해주어 제가 다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인도에서 나와 도로에 걸을 때 뒷차가 비키라며 경적을 울리는데, 노르웨이 친구가 '긴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인내심 부족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듣고 노르웨이는 정말 타인에 대한 존중이 사회의 든든한 기반 그 자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3) Law of Jante

북유럽에는 모두가 성경의 십계명처럼 배우는 '안테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거나, 낫거나, 더 잘알거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인데 이러한 법칙을 어릴 때부터 배워와서 겸손의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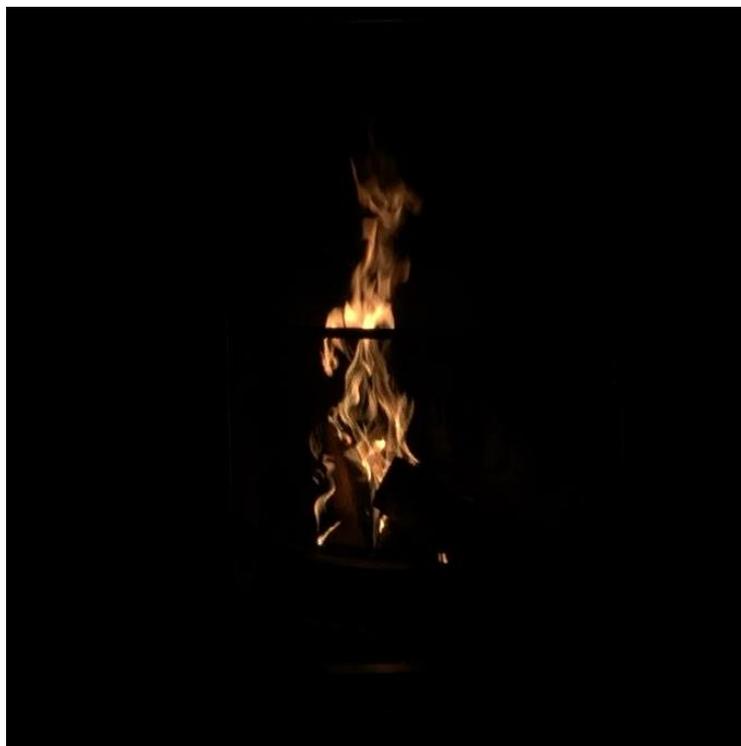
이어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자랑하지 않고, 타인의 외모나 품성을 판단하지 않으며 '서로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agree to disagree)'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4) dannelse ; dannete

위의 노르웨이어는 다른 나라 말로는 완전히 번역할 수 없는 어떤 '된사람' '사람됨'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조를 나누어 이 단어의 뜻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dannete'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다다르며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이유를 다시한번 마음에 되새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5) Hygge

'편안함', '안락함', '따뜻함', 'Cozyness'의 뜻을 가진 노르웨이어입니다. 첫째날 저녁, 로비에 다같이 소파에 앉아 서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추운 날 벽난로에 불을 붙이고 다같이 둘러앉아 온기를 느끼며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 모닥불을 지피지는 못했지만 옹기종기 모여앉아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조용히 얘기하니, 여유로운 노르웨이의 문화를 온몸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후에 비오는 날에 도서관의 Nansen's room 의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다같이 얘기한 추억은 아직까지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따뜻한 기억 한조각입니다.



3. 릴레함메르를 돌아다니며 배운 것들

1) 모두의 저녁이 보장되는 나라 : 6시면 모든 가게가 닫히고, 우리나라와 같은 24시간 편의점은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생각하니, 꺼진 가게의 불들을 봐도 아쉬움보다 몽클함이 느껴졌습니다.



2) Fretex (used clothing store) : 구제 옷가게인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안 입을 옷을 많이 가게로 가져가고, 또 가게에서 많이 사갑니다. 물가가 비싼 노르웨이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괜찮은 옷, 가방, 인형, 액세서리, 책 등 다양한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건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안 입을 옷은 쉽게 버리고, 중고라 하면 꺼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친환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내가 필요없는 옷은 누군가에겐 필요한 옷이나 물건이 될 것이란 생각, 새상품을 사지 않아도 이미 있는 것들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3) For our planet : 쓰레기통이 잘 없는데, 길가에 쓰레기도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이 보이면 그 때 버리거나, 집까지 가져가서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걸어가다가 쓰레기를 떨어뜨리자 노르웨이 친구가 당황한 눈빛으로 황급히 가서 얼른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땅에 버려지면 누군가가 주워야 할테고, 그렇지 않으면 떠돌아 다니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본받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마지막날, 저녁을 먹고 다같이 모여 closing session 을 할 때 Nasen Academy 소장님 (Unn Irene)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비행기는 탄소 배출에

엄청난 기여를 하니 되도록 적게 타길 바랍니다. ”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북유럽권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다는 죄책감에 심리상담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노르웨이 친구의 말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 건강한 식단과 운동하는 습관

추운 환경이라 자체 생산하는 식량이 많지 않아 음식에 소금간을 많이 하는거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음식이 조금 짠데, 그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음식에 많은 양념을 하지 않아 조금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식사에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드레싱이 되어 나오는 우리나라와 달리 생으로 먹을 수 있게끔 드레싱 소스가 따로 비치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대부분 오일만 조금 뿌려 먹거나 거의 드레싱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대 과식하지 않고, 음식 남기는 것을 싫어해 딱 먹을만큼만 덜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따라 러닝이나 조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Day-off 날에 다같이 하이킹을 갔었는데, 비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산을 따라 러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가이드해 준 친구 말로는, 겨울에 모두가 산에 가서 스키를 타고 하이킹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어느 정도 체력과 운동실력이 있다고 합니다.

5) Judge 하지 않는 나라

절대 타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절대 외모나 체형에 대해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며, 특히 몸무게나 비만에 관해서는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무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체중이 불고 살이 찢어도,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지 타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운동 좀 해라', '먹는 것 좀 줄여야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있으니 저 또한 꾸며진 제 자신보다 더 자연스럽게 솔직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덕분에 더 빨리 친해지게 아닐까하고 생각해봅니다.



개체 1 함께했던 노르웨이 친구들



개체 2 박물관 관람 후 내려오며



개체 3 Sigrid Undset 생가에서



개체 4 Sigrid Undset 생가 내부



개체 5 릴레함메르 내 작은 공원



개체 6 Garden Party 에서

*참고해야할 사항

-전반적으로 봄,가을 날씨였으나 일교차가 큰 편이니 **도톰한 아우터나 스웨터** 한 개씩은 챙겨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세탁기와 건조기를 무료로 사용가능하므로 옷은 많이 들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킹을 위한 운동화/ 방에서 신을 **슬리퍼**를 챙겨오시면 편합니다.

-저녁파티/뒷풀이 때 술을 사가야할 경우가 있을텐데 **술이 많이 비싸니** 한국이나 면세점에서 사서 들고 오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새롭게 사귀 친구들, 선생님들께 드릴 **한국적인 선물** 몇 개씩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은 다 준비해오더군요...) 선물로는 국립박물관 기념품점에 파는 전통그림 엽서/손수건이나 다이소 전통코너에 파는 다양한 한국굿즈들을 추천합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는걸 대비해 **컵라면** 몇 개 들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외국친구들에게 맛 보여주기 위해 **불닭볶음면** 같은 컵라면 몇 개 가져가는 것도 친해지기 위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노르웨이는 웬만하면 **신용카드**로 다 해결이 가능하므로 많이 환전해오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기차표 구매시** '학생 할인'에 우리도 해당되므로 꼭 **학생 할인가**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금액 차이가 큼니다.

-기숙사 방 풍경

